

제목 : 하나님의 큰 일

본문 : 행 2:5-13

시작찬송가 : 172(새183), 177(새190), 500(새446)

현금찬송가 : 265(새516), 274(새497), 495(새438)

오순절 즈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 나라의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의 소리를 듣고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자기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놀라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면서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성령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각국의 여러 방언을 말하였습니다(5-7절)

① 오순절에 각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것은 명절을 지키려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명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거하며 각각 자기 나라의 말을 사용했기에 도시는 매우 혼잡하였습니다.

행 2:5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②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제자들의 겉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행 2:6-7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요 7:52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③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천한 사람들 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 같은 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모든 민족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면, 주님께서서는 우리도 제자들처럼 들어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고전 1:27-29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2. 각 나라 사람들이 제자들의 방언을 알아들었습니다.

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출신지는 유대를 중심으로 여러 지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예루살렘 근교에서부터 로마까지 원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모인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모두가 자기의 난 곳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행 2:9-11 우리는 바대 인과 메대인과 엘람 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 인과 아라비아 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② 제자들을 통해 각지에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우리는 선교지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이런 지역의 흠어진 나그네들에게 있었고, 바울도 아시아 여러 지역을 오가며 전도하였으며, 요한은 소아시아 교회에 글을 보내어 주님의 말씀을 증거 했습니다.

벧전 1:1-2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흠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지어다.

행 19:10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계 1:4(상반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 3.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또는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11-13절)

- ① 오순절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일을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사죄함 받는 것과 영생의 구원을 얻는 일이 여러 나라의 말로 선포된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가장 큰 일이며, 오늘까지도 이 큰 일은 세계 도처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마 16: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행 2:38-39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 ②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최고의 일입니다. 이 구원과 생명의 일이 무엇보다 우선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알지 못하면 놀라며 의혹하며 조롱도 하고 심지어 새 술에 취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생명의 하나님을 알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귀중한 일이 됩니다.

히 4: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의 한마디 :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 |   |                 |
|---|-----------------|
| 1.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사역을 위하여.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                 |
| 2.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 3.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
| 4. 공동기도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                 |

명성교회